

Bread from Heaven Part 2

하늘로부터 온 떡 (2 부)

Everybody loves free food.

누구나 공짜 음식을 좋아합니다.

In John 6, Jesus preaches to the 5000,

요한복음 6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5 천 명에게 설교하셨습니다.

They are hungry,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so he performs the miracle of the loaves and fish.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 기적을 베푸십니다.

Because of the free food,

공짜 음식 때문에,

now the people really want to follow him!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Yet Jesus knows their motives, so he says:

하지만 그들의 동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of bread.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John 6:26, 27).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26, 27)

The physical bread was nothing –

음식으로서의 떡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

it was just a type and shadow of the true bread which is Christ.

그 떡은 단지 참된 떡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In vs. 32,33

32 절, 33 절에서

Jesus replies,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John 6:32,3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32, 33)

The crowd declares: "Sir,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ohn 6:34,35).

모인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4, 35)

In John 6:35, Jesus says, "I am the bread of life"

In NT Greek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요한복음 6:35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신약성경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허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입니다.

You'll notice,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the statement starts with the words “ego and emi,”

이 말은 “에고”와 “에이미”라는 두 단어로 시작됩니다.

in New Testament Greek means “I am,”

신약성경 헬라어로 이 말은 “나는 ~이다”를 뜻합니다.

Repeat after me ***ego eimi***

발음을 따라 해보세요. **에고 에이미.**

Means “I am”

“나는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Does the first word “ego” look familiar to you?

여러분은 “자아(ego)”라는 첫번째 단어를 많이 보셨나요?

Can you think of some English words with “ego” in it?

“에고(ego)”가 들어간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시는지요?

Can you think of any words.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Ego” is a word.

“에고”는 단어입니다.

Yes “ego” is a word.

“자아(ego)”는 단어입니다.

Ego-centric

자기중심적인(이기적인).

What else?

또 무슨 단어가 있나요?

Egoist

자기중심주의자(이기주의자).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Some of these words have been Koreanized as well.

이중 몇 가지 단어는 한국화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One person said “I am who I am”

어떤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r “I am that I am” found in Exodus chapter 3.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 장에 나옵니다.

God is revealing his name.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This specific phrase *ego eimi* occurs in the Gospel of John over twenty times.

이 특정한 문구인 *나는 ~이다(ego eimi)*라는 부분은 요한복음에 12 번 넘게 나옵니다.

So this is an important term.

따라서 이것은 중요한 용어입니다.

But seven times the “I am” *ego eimi* is followed by a metaphor.

그런데 “나는 ~이다”라는 문구 다음에 비유가 이어지는 부분이 7 번 있습니다.

These 7 times are what we call the 7 I am’s.

이 표현은 이른바 ‘7 가지 나는 ~이다’라고 합니다.

Each of Jesus’ 7 “I Am”s is a declaration, 예수님이 말씀하신 7 가지 “나는 ~이다”는 각각의 선언으로 revealing an aspect of Jesus’ mission and Jesus’ identity.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That is to say, they reveal who He is, and

what He came to do)

(다시 말해서, 이들 선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슨 사명을 띠고 오셨는지를 계시합니다)

Can anyone tell me any of the seven “I am’s” in John?

요한복음의 7 가지 “나는 ~이다”를 이야기해보시겠어요?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Very good! ... found in John 15

좋습니다! ... 요한복음 15 장에 있지요.

So What are the 7 “I am” statements in John?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온 7 가지 “나는 ~이다”는 어떤 내용일까요?

1. “I am the bread of life” – John 6:35, 41

1.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 요한복음 6:35, 41

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 John 8:12, 9:5

2. 나는 세상의 빛이니” – John 8:12, 9:5

3. “I am the door of the sheep” – John 10:7, 9

3. “나는 양의 문이라” – 요한복음 10:7, 9

4. “I am the good shepherd” – John 10:11, 14

4. “나는 선한 목자라” – 요한복음 10:11, 14

5.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 John 11:25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요한복음 11:25

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 John 14:6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요한복음 14:6

7. “I am the true vine” – John 15:1, 5

7. “나는 참 포도나무요” – 요한복음 15:1, 5

So 7 times we have “ego eimi” with a metaphor

7 번에 걸쳐 “나는 ~이다”로 시작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In his statement,

이 선언에서,

Jesus wasn’t offering physical bread to meet their physical needs,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떡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NO, Jesus was offering them the true, living bread from heaven that
had been sent down by the Father to satisfy their spiritual hunger.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참된 살아있는 떡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You see,

자,

from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we should all be hungry for righteousness.

우리는 모두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Because we all are sinners;

왜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that means, we lack righteousness

즉,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we are unrighteous – poor in righteousness.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 의에 있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So that is why we should all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Unfortunately, the crowd was not looking for righteousness,

불행히도, 군중들은 의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they were hungering and thirsting for something physical.

그들은 물질적인 어떤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어요.

Jesus says in John 6:47-51: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6:47-5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I am the bread of life. Y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John 6:47-51)

...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47-51)

But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히도,
the 5000 Jews,
5 천 명의 유대인들은
as well as the 2 million Israelites in the desert
광야에 있던 2 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ate the bread to fill their tummies, to satisfy **their hunger**.
배를 불리기 위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떡을 먹었습니다.

They didn't enter salvation.

그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enter the Promised Land. Why?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The Bible says they lacked something.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Do you know what was missing?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Let me give you two verses as a hint:

제가 힌트로 성경말씀 두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For we have **heard** the Good News, just as they did. They heard the message, but it did them no good, because when they heard it, they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Now we who have **believed** enter that rest.

(Heb. 4:2,3)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2,3)

In our passage in John, Jesus says,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ohn 6:35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5

So what did they lack?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나요?

faith

믿음이 없었습니다.

Remember

기억하십시오.

...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Romans 10:17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So if you want faith –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

if you want to be strong in faith –

만일 믿음에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

if you want your faith to grow, it comes from hearing.

만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들음에서 옵니다.

Hearing what?

무엇을 들음에서 올까요?

The word of Christ, which is the Gospel.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That is why, I, as your pastor,

이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your shepherd, I must feed you Gospel.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양식으로 먹여야 합니다.

I must ensure that in all the sermons I prepare,

저는 제가 준비하는 모든 설교에

the Gospel is there so that you can hear the Gospel –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hat is, the word of Christ –,

복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and so that the Gospel will produce faith in your hearts and
through faith you will receive the benefit of salvation – eternal life!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구원의 유익,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d through regularly hearing the gospel every Sunday,
your faith will grow.

그리고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Do you want to be strong in faith?

여러분은 믿음에 강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Then hear, hear the Good News,

그러면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And believe, believe in the Gospel.

그리고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Now, unfortunately, for the Israelites and the Jews,

자,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they failed to believe the word of Christ –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the promise of God.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So they did not receive the true, spiritual benefits of
the gift of the manna.

그들은 만나라는 선물로부터 참된 영적 유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They failed to recognize what it is.

그들은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In Exodus 16:13-15

출애굽기 16:13-15 절입니다.

... in the morning there was a layer of dew around the camp. ¹⁴ When
the dew was gone, thin flakes like frost on the ground appeared on the

desert floor. ¹⁵ When the Israelites saw it, they said to each other, “What is it?” For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Moses said to them, “It is the bread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Exodus 16: 13-15

...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13-15)

This manna was all over the ground –

이 만나는 지면 전체에 내렸습니다 -

It looked like thin flakes of frost, a layer of dew –

이것은 이슬이 덮인 듯, 서리 같이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

covered the entire desert floor.

광야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Can you imagine being one of the Israelites seeing manna for the first time?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 맨 처음 만나를 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하실 수 있나요?

You wake up one morning and

여러분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you come out of your tent and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you see this white manna everywhere for the first time

그런데 처음으로 사방에 하얀 만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guys would come out and say, 이거 모지? What is this?

남자들이 나와서 보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지?

And the ladies would then come out surprised, 오 마나!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오, 만나!

The manna was everywhere,

만나가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어요.

there was so much manna for everyone to eat.

모두가 먹을만큼 넉넉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Can you imagine the everyday conversations you would hav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여러분이 그 당시 그곳에서 날마다 친구,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상상해보실 수 있나요?

너, 밥 먹었어? 만나 좀 즐까?

나 많아!

For forty years -- everyday --

40 년간 - 날마다 -

the Israelites ate this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온 이 떡을 먹었습니다.

But instead of expressing gratitude towards God,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대신,

they grumbled against Him.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원망했습니다.

Now again it's easy for us as spectators to be disparaging of the Israelites,

자, 우리는 관중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There they go again!”

“저 사람들 또 저렇게 행동하네!”

But think about it.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d get sick of it too –

여러분도 그 만나에 싫증이 날 수 있습니다.

most of us can barely eat the same thing for two days straight,

우리 대부분은 이틀동안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기 힘듭니다.

let alone for forty years.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먹기는커녕

Can you imagine eating the same food everyday of your life?

여러분은 평생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In the morning, your mom would prepare manna cereal,

아침에 엄마가 ‘만나 시리얼’을 내놓습니다.

at lunch you might eat a manna sandwich – manwich and

then at dinner?

점심에는 ‘만나 샌드위치’, 그러니까 ‘만위치’라는 걸 먹어요. 그러면

저녁은 뭘 먹을까요?

엄마 what's for dinner?

엄마, 저녁에 뭘 먹지요?

What? Manna again?

뭐라고요? 또 만나예요?

We would get sick of it!

우리도 만나에 싫증이 날 거예요!

In Numbers it says, “we have lost our appetite; we never see anything but this manna!”(Num. 11:6)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6)

They were so sick of the repetitious receiving of manna,
 그들은 반복적으로 만나를 받아 먹는 것이 싫어졌고 질렸습니다.
 the message of the Gospel became bland, insipid
 boring to them.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맛없게 느껴지고, 재미없고
 지루해졌어요.

They began to complain again.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Israelites began to crave other food, and again grumbled,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하기 시작했고, 다시
 원망했어요.

We remember we ate in Egypt at no cost— cucumbers, melons,
 leeks, onions and garlic. (Num. 11:4,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수기 11:4,5)

Once again,
 the silly Israelites wanted to go back to Egyptian slave food.
 다시 한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때 먹던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Cucumbers Mmmm!
 오이... 아, 맛있다!

Leeks – 부추 or 파? Yummy!
 부추 - 파? 맛있어!

Onions – Ooooh tasty right?

양파 - 아, 정말 맛이 좋지 않아?

- and garlic - delectable!!

- 그리고 마늘 - 향이 아주 좋지!

Obviously, I'm being sarcastic here.

명백히, 저는 이 부분에서 그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I believe God planned this horrible menu of 부추 파, 양파 오이 마늘 to demonstrate how foolish the Israelites were.

저는 하나님께서 부추, 파, 양파, 오이, 마늘이라는 끔찍한 메뉴를 나열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시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to show how stupid like sheep we are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양처럼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when we neglect

the weekly preaching of the Gospel and

우리가 매주일 복음의 설교를 등한시할 때,

replace it with teachings from the contemporary world – our Egypt.

복음의 설교를 해야 함에도, 요즘 세상, 곧 우리의 '애굽'의

가르침으로 바꿔 가르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십니다.

Teaching such as self-help.

설교를 자기계발에 관한 가르침으로 바꿉니다.

“Hey, people like self-help, give me a Christianized message of self-help,

“저기요,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좋아합니다. 저한테 자기계발을

기독교식으로 만든 설교를 해주세요.

Hey, the message of health, wealth and prosperity is selling,

Joel Osteen “Your best life now!”

이봐요, 건강, 부와 번영에 관한 설교가 인기 있다고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 이런 거요.

give me a worldly message of health, wealth and prosperity
disguised in Christian lingo.

저한테 기독교 용어로 잘 위장한, 건강, 부와 번영에 관한 세상적인
설교를 해주세요.

Entertainment is popular,
연예계 이야기가 인기 있어요.

the Gospel of Jesus is "boring," and "monotonous,"
예수님의 복음은 "지루하고" "단조로워요."

give me a cool, hip, exciting messages that I can relate to and
lace it with my favorite inspirational Bible verses.

제가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멋지고 유행에 맞춘 흥분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내용에 제가 좋아하는 감동적인
성경구절을 곁들여주세요.

It's all about me, me, and me!

그것은 모두 나, 나, 나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해요!

Cucumbers, onions, garlic and leeks!

오이, 양파, 마늘 그리고 부추!

These popular, contemporary - egocentric -- messages are never
about manna –

이렇듯 인기있는 요즘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는 결코
만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Never about the Gospel.

결코 복음에 관한 내용도 아닙니다.

Loved Ones,

사랑하는 여러분,

the church today is being infiltrated with popular man-made messages, rather

오늘날 교회에는 인기에 치중한 인간적인 메시지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than the Gospel message that originates from Heaven – manna.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메시지, 즉 만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One of the reason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s unpopular is that the saving message of the cross is counter-intuitive to sinful man.

복음에 관한 설교가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십자가를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죄인인 인간의 직관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The Gospel manna is foreign to us

복음이라는 만나는 우리에게 이질적입니다.

That is why the Israelites responded to it by asking

“What is it?” (Ex. 16:15) –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15)라고 말한 겁니다.

The Gospel message is a message we are unfamiliar with –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낯선 메시지입니다.

And so many people will hear the Gospel message and consider it to be foolish and some will even find it scandalous – offensive.

많은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충격적이다,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Why? Because the Gospel message is an alien message –

왜일까요? 왜냐면 복음 메시지는 외부에서 온 메시지가

때문이에요.

a message that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But sinful man wants to go back to that which is familiar,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Sinful man wants earthly-food from Egypt rather than Gospel-food from heaven.

죄인인 인간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양식보다는

애굽에서 온 지상의 양식을 원합니다.

For us Christians, this Gospel-food from heaven will sustain us –
Give us strength in our difficult journey!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양식은 우릴 살게
해줄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For we are all pilgrims in the desert, just like Israel (Hebrews
11:9,13,38),

왜냐면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거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9,13,38),

Unfortunately, the Israelites did not trust God and
they grumbled for 40 years –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40 년간 원망하였습니다.

and so no one entered the promised land –
all of them died in the desert

그리하여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Among the 1st generation Israelites,
Only 2 entered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에서

오직 2 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2 out of approximately 2 million people

약 2 백만 명 중 2 명만이 들어갔습니다.

Do you know who the 2 are?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And in John 6 there were 5000,

요한복음 6 장 이야기에는 5 천 명이 있었습니다.

But Jesus gave the 5000 the Gospel and
almost all of them left Jesus.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5 천 명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How many stayed with Jesus?

예수님 곁에 몇 명이 남았나요?

Just the 12,

12 명뿐이었습니다.

12 out of 5000 people!

5 천 명 중 12 명만 남았습니다!

Think about it.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Jesus would do horribly at a church growth conference today,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 참여했다면 그 성과가
형편 없었을 겁니다.

At church growth conferences,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서는

they teach all these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growing the

church –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모든 전략과 기법을 가르칩니다.

to turn churches into a mega churches –

교회를 초대형 교회(메가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Unfortunately, these strategies and techniques are unbiblical

불행히도 이러한 전략과 기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And so they attract thousands and thousands of pagans into the church.

그리고 그들은 수천 명의 이교도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Jesus being hired as a pastor of a church of 5000 people, and

여러분은 예수님이 5 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로 고용된 것을 상상해볼 수 있나요?

then in one week, in one day, after one sermon,

그런데 1 주일 내에, 하룻만에, 설교 한 편을 한 후에

the church shrinks from 5000 to 12 people.

교회 성도가 돌연 5 천 명에서 12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Pastor Jesus would be fired at most Korean churches today.

목회자로서의 예수님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해고되셨을 거예요.

But what happened with Jesus?

하지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that remnant of 12 humble, uneducated men,

그 곁에 남은 12 명의 겸손하고 학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as the found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의 교회 기초가 되어

spread the Gospel to the nations,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합니다.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

Christianity is now the world's largest religion.

기독교는 세계에서 신자 규모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2.2 billion people associate themselves with Christianity

22 억 명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From 12 to 2.2 billion people.

12 명에서 22 억 명이 되었습니다.

31% of the world's population.

세계 인구의 31%입니다.

Why? because as Peter replied to Jesus,

왜일까요?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처럼,

“You, Jesus,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You want church growth?

여러분은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we need to focus on the words of eternal life – The Gospel.

우리는 영생의 말씀, 곧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Sure the Gospel may shrink the church temporarily,

분명히, 복음은 일시적으로 교회를 축소시킬지 모릅니다.

It may weed out those who hate the Gospel.

그것은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but in the long run,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slowly but surely, God will grow the church – His way –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곧 그분의 길인 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The words of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Over the past three years at SEM –
 지난 3 년간 새문안영어예배(SEM)에서
 I know many people have left our church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SEM has shrunk considerably,
 예배 출석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we have had 3 pastor changes in less than 3 years,
 3 년도 안 되어 목회자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we have changed location 3 times in 2 years, and
 2 년동안 예배 장소가 3 번 바뀌었어요.
 our worship time has even changed a couple of times –
 예배 시간도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admittedly, these changes have hurt our church attendance,
 분명히 이런 변화로 인해 출석 교인이 줄어든 것입니다.
 our numbers have dropped,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but don't despair Brothers and Sisters!
 하지만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As Jesus grew the church with only 12 disciples,
 예수님께서 겨우 12 명 되는 제자들과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maybe God is asking you to be a remnant of SEM –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SEM 의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to help grow this church so that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it can be a light to the nations,

이 교회가 많은 나라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고

so that SEM can be a source of true manna for the hungry.

그리하여 SEM 이 굶주린 자들에게 참된 만나를 주는 원천이 될 수

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Let us pray that God will use you and me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주시도록

to bring hope to this dark and lost world!

그리하여 이 어둡고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을 가져오도록 기도합시다!

But let me warn you,

다만 여러분께 경고를 드립니다.

we too need to be careful.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Remember, we are like Israel and the Jews –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we always have a susceptibility/propensity to grumble.

우리는 항상 원망에 빠지기 쉬운 속성/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Many people have left the church grumbling.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And some of us are tempted right now to grumble and abandon the church,

그리고 우리 중 몇몇도 지금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shipwreck the faith.

신앙이 난파되는 일입니다.

Loved ones, be careful,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the devil is a roaring lion seeking to devour you.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죄가 여러분의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Like Israel, we all go through desert, wilderness periods in our life.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사막과 광야의 때를

겪습니다.

However, this earth is not our final destination (Hebrews 11:15,16).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15, 16)

Heb. 10:25 says,

히브리서 10:25 절에 이르기를,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e** one another. Heb.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The writer to the Hebrews commands us to meet together.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서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And by just coming, we encourage each other.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Just by seeing our smiling faces –

우리의 미소 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say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shaking each others' hands

서로 악수하는 것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At church, we receive manna from the preacher –

교회에서 우리는 설교자로부터 만나를 받습니다.

food that will nourish us and sustain us spiritually so that we can be strong in faith and not fall away – not grumble.

우리에게 영양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할 양식을 먹고 우리는 믿음 안에 강해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So that we can encourage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Beloved, let me leave you with this: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God is the true promise keeper (Hebrews 10:23)

하나님은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23)

– we can trust His promises, for they are always “Yes” and “Amen” (1 Cor. 1:20).

-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고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0)

Conversely, we are the promise breakers.

반대로,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We are disobedient Israel,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our bodi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desert.

우리의 죽은 몸은 광야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But ... 2000 years ago,

하지만... 2 천 년 전

One also underwent a desert period.

어떤 *한 분*도 광야의 때를 통과하셨습니다.

That *One* came down from Heaven as an obedient, faithful and true Israelite,

바로 *그 분*은 하늘로부터 순종하며 신실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려오셨습니다.

who never grumbled against God.

결코 하나님께 대적하여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That *One* passed the test that Israel failed.

*그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And that we failed.

우리가 실패한 시험도 통과하셨습니다.

That *One* is none other than Christ –

*그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Bread of Life sent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He is the Word that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John 1:14).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14)

He is **Immanuel**, God with us.

*그분*은 임마누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As God's outstretched arm rescued the Israelites through Moses from the bondage of Egypt (Ex. 6:6; Deut. 5:15),

하나님의 펴신 팔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6:6, 신명기 5:15)

His Outstretched Arm rescues us from the slavery of sin and death

and gives us life through the greater Moses.

그분의 퍼신 팔은 더 크신 모세를 통해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And through the greater Joshua – Jesus

그리고 더 크신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He will ultimately deliver us into the greater Promised Land –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큰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His eternal Kingdom –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where there will be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no pain,

고통도 없고

no death,

사망도 없고

and no more grumbling,

더 이상 원망함도 없는 곳

but eternal joy (Rev. 21:4)

다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요한계시록 21:4)

Hallelujah!

할렐루야!

Let us feed on Jesus Christ,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읍시다!

Let us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the Bread of Life – Jesus Christ given for our
salvation and our nourishment!

주님, 우리의 구원과 양식을 위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Forgive us Lord because of our grumbling, our silliness, our idolatry in

our worship.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망한 것, 어리석음, 우상숭배한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Give us a repentant heart and a contrite spirit.

저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Circumcise our idolatrous hearts and replace it with the heart of Christ.

우리의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할례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Give us a heart that desires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and in
reverence and in awe.

저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려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Bless SEM church.

우리 SEM 교회에 복을 주소서.

As you did, using only 12 disciples, may you use this small, humble
congregation of brothers and sisters.

주님께서 겨우 12 명의 제자를 쓰셨듯 이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작고
겸비한 회중을 사용해주시옵소서.

May we be a holy people to the LORD.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And as you did not set your love nor choose Israel because they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아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듯이,

for they were the least of all peoples,

모든 백성보다 작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May you choose us and set us apart to be a light to the nations,

주님, 저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만국에 빛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may you use SEM to free sinners from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SEM 을

사용하소서. and bring them to eternal life through your manna,

그들이 주님의 만나를 통해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일에 사용하소서.

through your Bread of Life, through your gospel, Jesus Christ.

생명의 떡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하소서.

Amen.

아멘.